

Dave Mathewson 박사, 해석학, 강의 28, 요약 결론

© 2024 데이브 매튜슨(Dave Mathewson) 및 테드 힐데브란트(Ted Hildebrandt)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전 세션에서 이야기한 모든 것을 하나로 모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해석학과 성경 해석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해석학을 일종의 질문을 하거나 질문을 제기하는 것으로 보면, 우리가 무언가를 어떻게 이해하거나 아는가?

텍스트를 해석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텍스트를 이해하려고 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우리의 경우에는 구약이나 신약의 텍스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언가를 읽고 해석하고 무언가를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우리가 하는 일을 설명하는 다양한 이론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아마도 성경 본문을 이해하고 이해하기 위해 성경 본문에 원리와 방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을 더 광범위하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다양한 해석 이론과 해석학 이론을 살펴보았습니다. 성경 본문부터 시작하여 저자 중심의 해석 접근 방식을 통해 역사적, 논리적으로 진행됩니다. 텍스트를 의미의 주요 위치이자 해석의 주요 대상으로 보는 텍스트 중심 접근 방식입니다.

그런 다음 독자와 텍스트를 이해하는 독자의 능력에서 의미를 찾는 독자 중심 접근 방식입니다. 그리고 더 포스트모던적인 접근 방식과 텍스트의 의미를 전혀 무시하는 해체적인 접근 방식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역사적 접근과 자료 형식, 편집 비평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해석 방법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문법과 문맥, 어휘 분석에 대한 전통적인 접근 방식을 살펴보입니다.
 신약에서 구약의 사용. 성경 본문의 신학적 분석.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본문을 읽는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성경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 효과적인 해석학적 실천이나 해석적 실천으로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지 묻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다양한 해석학적 이론과 해석적 접근 방식을 통해 수행하는 작업은 단순히 텍스트의 다차원성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다양한 차원에서 텍스트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일관된 해석적 접근 방식으로 통합하려고 논의하거나 시도하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다양한 방법은 성경 본문인 본문의 다양한 차원을 탐구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본문은 역사적, 문화적 뿌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전해짐을 깨닫습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 다양한 기술을 사용해야 하는 문학적 구성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특정한 언어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신학적인 차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논의해 온 다양한 해석적 접근 방식은 성경 본문의 다양한 차원을 조사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다양한 방법과 접근 방식에 대해 논의한 후,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다양한 접근 방식과 방법, 통찰과 해석 이론을 성경 해석에 대한 복음주의적 접근 방식으로 통합하는 것입니다. 이는 성경을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자 인간 저자의 말씀으로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접근 방식입니다. 두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첫째, 우리는 다양한 이론 중 일부, 특히 역사적, 기술적, 보다 저자 중심적인 접근 방식, 그 다음에는 보다 기술 중심적인 접근 방식, 그리고 훨씬 더 독자 중심적이고 포스트모던적, 심지어는 해체적인 포스트-이론을 살펴볼 것입니다. 구조주의적 접근 방식,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성경 해석에 대한 복음주의적 접근 방식으로 통합될 수 있는지. 다시 말하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동시에 성경의 역사적 뿌리가 인간과 인간 저자의 말씀임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세션에서는 해석적 방법론이 어떤 모습일 수 있는지, 우리가 논의하고 설명하고 예시해온 이러한 다양한 방법 중 일부를 수집하는 접근 방식은 무엇일 수 있는지, 해석적 접근 방식은 어떤 모습일 수 있는지, 해석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다양한 접근 방식과 해석 이론을 어떻게 성경 해석에 대한 복음주의적 접근 방식으로 통합할 수 있을까요? 우선, 우리가 살펴본 다양한 이론과 접근 방식을 반영하려는 시도로 7~8가지 관찰이나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우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성경이 영감된 성경임을 고백하기 때문에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도착하다. 본문에 다른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내 외부에 내가 어느 정도 도달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의미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이 그 계시를 이해할 뿐만 아니라 순종하고 실천하기를 기대하시는 방식으로 그분의 백성에게 전달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려고 합니다. 만일 성경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이 실천하고 그들의 삶을 따르기를 기대하시는 것이라면, 그 본문에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의미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종류의 안정된 의미도 부정하는 완전한 상대주의는, 그 의미에 도달하는 것이 아무리 어렵고, 잠정적이거나 우리가 그것을 완벽하고 철저하게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을 아무리 깨닫더라도, 내가 얻을 수 있는 어떤 종류의 의미가 있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어느 정도. 그러므로 완전한 상대주의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모순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자의 의도는 여전히 유효한 목표입니다. 아무리 불완전하게 도달하더라도 저자의

의도에 대해 절대적인 확신을 얻을 수는 없지만 때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가치 있는 목표이자 필요한 목표입니다.

우리가 저자의 적어도 개연성 있는 의도를 추구한다는 것, 즉 텍스트에 대한 우리의 해석은 저자가 의도했을 수 있었던 것과 저자가 의도했던 것에 비추어 정당화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완벽하게 또는 철저히 밝혀낼 수는 없지만 실질적이고 적절하게 밝혀낼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더 이상 상담할 수 없는 작가가 쓴 텍스트를 다룰 때 작가의 사고 과정이나 마음을 드러낸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직 살아있는 저자들에 대한 컨설팅의 문제적 성격까지도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가의 의도는 가치 있는 목표로 보인다. 그리고 작가의 마음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텍스트를 바탕으로 작가의 개연성 있는 의도와, 텍스트에 드러난 작가의 의도를 밝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는 데 따른 결과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전달하려고 의도하신 것, 그들이 관찰하고 순종하기를 기대하시는 것, 어느 정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의미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아무리 불완전하거나 철저히더라도, 텍스트의 의미와 저자가 의도한 의미를 어느 정도 추구하는 것은 가치 있는 목표이다. 둘째, 성경을 영감받은 것으로 이해하는 것과 관련하여, 이전 세션 중 하나인 영감받은 성경으로 돌아가 보면,

우리는 성경이 영감되었다고 고백할 때 주로 본문 자체, 즉 완성된 결과물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자들이 성경을 쓰기 위해 어떤 인간적 과정을 거쳤든, 그 최종 결과물은 바로 하나님께서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싶어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느 정도, 어떤 방식으로든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기록된 텍스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최종 결과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텍스트에 초점을 맞춘 그러한 방법들은 타당하고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즉, 텍스트의 문법적 차원 등에 초점을 맞춘 방법들, 문법 분석, 텍스트의 표현과 어휘 목록을 다루는 어휘 분석, 텍스트의 어휘 및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조금 이야기했습니다. 수단. 저자가 다양한 형식과 소스를 어떻게 모아 일관된 전체로 구성했는지 묻는 편집 비평과 같은 다른 접근 방식입니다. 문맥 분석, 텍스트의 세부 사항과 텍스트의 작동 방식을 다시 살펴보는 문학적 접근 방식입니다.

이것은 어떤 텍스트인지, 이 텍스트의 문학적 형식은 무엇인지 묻는 장르비평이다. 텍스트와 접촉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텍스트 자체를 있는 그대로 다루고 텍스트의 세부 사항을 다루는 접근 방식은 모두 유효하고 필요합니다.

구조주의, 많은 텍스트 중심 접근 방식. 그것들은 모두 우리를 성경 본문 자체와 접촉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하는 텍스트로서의 성경은 텍스트 자체를 다루고 텍스트의 세부 사항을 살펴보는 접근 방식과 일치합니다.

단순히 텍스트의 기원과 다양한 출처, 텍스트를 생성한 역사를 살펴보는 접근 방식과는 반대입니다. 본문 자체를 다루고 본문 그대로의 본문과 접촉하게 하는 접근 방식은 타당하고 필요하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본문은 자기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논의한 내용의 세 번째 의미와 이러한 다양한 접근 방식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성경에 대한 복음주의적 접근 방식으로 통합하는 세 번째 원칙입니다. 성경은 역사 속의 하나님의 행위에 대한 기록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역사적 접근도 타당하고 필요합니다. 즉, 비역사적인 접근, 텍스트 뒤의 역사나 텍스트가 참조할 수 있는 텍스트 외부의 역사적 세계에 관심이 없거나 심지어 거부하는 일부 문학적 접근입니다.

오직 관심만 있는 비역사적 접근, 특히 우리는 관심이 없거나 때로는 심지어 거부하기까지 하는 많은 문학적 접근을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성경을 순전히 허구의 문학이나 그와 유사한 것으로 취급할 수 있는 일부 접근은 거부되어야 합니다. 성경 자체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적 행위, 또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대신하여 역사 속에서 행하신 구속 행위의 기록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 접근은 정말 필요하고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역사적 배경과 상황,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재구성하는 역사비평과 관련된 접근 방식, 본문의 역사성에 대한 질문, 복음서의 조화, 언급된 역사적 사건의 타당성과 성격에 대한 질문 등을 한다. 성경 본문에서는 성경이 자신의 백성을 위해 그리고 그들을 대신하여 역사 속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기록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역사에 대한 신의 개입을 허용하고 이에 열려 있는 접근 방식으로 역사적 접근 방식을 조절해야 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따라서 부활과 기적, 신이 인간으로 성육신하는 것과 신의 신적인 개입과 같은 일을 허용합니다. 역사 속으로. 신의 개입을 허용하지 않고 단순히 유효한 역사성을 나의 현대 상황과 유사한 것으로 보는 원인과 결과 가정으로 작동하는 역사적 비평적 접근 방식, 단순히 초자연적인 신의 개입을 배제하는 접근 방식은 거부되어야 하며,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신 것에 대한 증인이자 기록이라고 다시 주장하는 성경 본문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역사적 비평은 초자연적인 것을 허용하는 접근 방식으로 완화되어야 하지만, 반면에 내가 이미 말했듯이 역사적 접근 방식은 완전히 비역사적인 해석학적 또는 해석적 접근 방식, 즉 즉, 텍스트 외부의 세계를 언급하는 역사적 참조성을 거부합니다.

또는 텍스트의 역사적 차원이나 특정 개인이 실제로 존재했는지 또는 특정 사건이 발생했는지에 관심이 없는 접근 방식도 거부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특정 문학 비평 또는 특정 서사적 접근 방식이 이 범주에 속합니다. 따라서 역사 속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을 기록한다고 주장하는 본문은 성경 본문에 대한 역사적 접근 방식을 요구하고 요구하며 검증합니다.

넷째, 성경 역시 인간의 문서이기 때문에 인간 저자와 구성 과정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비평과 다른 접근 방식도 가치 있고 필요합니다. 형식 비평, 출처 및 편집 비평, 텍스트의 역사적 배경을 재구성하려는 역사적 접근 방식, 파괴적이고 부정적인 가정을 제거한 다양한 비평 방법론과 같은 많은 비평은 가치 있는 도구입니다. 그들은 다시 한번 우리를 역사적인 저자, 성경 본문의 저자와 연결시켜 줍니다. 예를 들어, 작가가 사용했던 일반적인 문학 유형에 초점을 맞춘 장르 비평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저자가 자신의 신학적 의도를 전달하기 위해 출처를 취하고, 형식을 취하고, 편집하고, 배열하는 방식을 탐구하는 편집비평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인간의 문서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저자를 본문을 구성하는 사람으로 초점을 맞추는 접근 방식은 타당해 보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파괴적인 경향이나 전제를 제거하면 이러한 접근 방식은 인간 저자와 텍스트를 생산하는 저자의 활동을 다루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본문에 대한 비판적인 접근 방식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 본문이 하나님의 말씀인 동시에 인간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들은 정당해 보입니다. 따라서 다양한 비판적 접근 방식이 유효하고 필요합니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때때로 그 사용에 수반되는 파괴적이고 부정적인 가정에서 제거되고 이혼된 경우입니다. 다섯째,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이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교회의 성서이기 때문에 우리는 본문의 신학적 차원도 탐구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본문의 신학적 차원을 무시하는 접근 방식에도 주의하십시오.

다시 말하지만, 성경 본문의 신학적 성격을 고려하지 않은 순전히 역사적 접근이나 순전히 문학적 접근은 피해야 합니다. 그 대신 우리는 본문이 신학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도 이미 살펴보았듯이 오래된 신약성경 본문을 성경의 더 폭넓고 포괄적인 신학 이야기, 곧 자기 백성과 모든 창조물을 위한 하나님의 구속 활동 안에 넣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구약과 신약은 교회의 경전으로서, 탐구가 필요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말씀으로서의 신학적 차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학적 분석은 해석 작업의 일부가 되어야 합니다. 여섯째, 훨씬 더 급진적인 접근 방식, 훨씬 더 급진적인 독자 반응 접근 방식으로, 의미는 오로지 독자의 눈에만 달려 있으며, 성경 본문에 대한 훨씬 더 포스트모던적이고 해체적인 접근 방식은 여전히

기독교 해석가들에게 할 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통역사의 자만심과 오만함을 징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것들이 기능한다는 점에서, 나는 주로 겸손을 키우고, 누구도 본문의 의미와 순수하고 완벽하며 원시적인 연결을 갖는 해석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기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어떤 전제나 신학적 이해도 없이 본문에 접근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단지 기록되기를 기다리며 백지 상태로 본문에 접근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의 관점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독자 중심 접근 방식과 심지어 해체적인 접근 방식은 우리 모두가 텍스트를 읽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성향을 가지고 텍스트에 접근한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특정 관점을 통해 텍스트를 봅니다. 이제 나는 이것이 우리가 실패할 운명에 처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져오는 내용을 본문에서 단순히 찾을 운명에 처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대신에 우리가 사용하는 다른 접근법 중 일부를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허용되거나, 그 관점이 도전받고 바뀔 수 있고, 텍스트가 변형될 수 있으며, 우리가 우리 외부의 의미, 즉 다른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유형의 접근 방식은 해석이 때로는 지저분한 과정이라는 점, 저자의 의도, 때로는 텍스트의 의미가 우리를 벗어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해석 시 겸손의 필요성을 일깨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만함과 자만심이 설 자리는 없습니다. 또한 억압적인 방식으로 해석을 사용하는 것을 인식할 필요성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러나 그 대신 우리는 우리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본문에 이르지만, 바라건대 텍스트가 해석 과정에서 마찬가지로 그러한 관점을 변형하고 도전하도록 허용합니다. 따라서 훨씬 더 독자 중심적이고 심지어 해체적인 접근 방식은 때때로 우리 해석의 잠정적 성격을 상기시키고, 겸손의 필요성을 상기시키며, 우리가 다른 가정을 가지고 본문에 접근한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향.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그 사실을 알고 본문에 다가가는 사람은 단순히 다음과 같이 말하는 사람보다 본문을 해석하고 그러한 관점이 본문을 무시하도록 허용하지 않는 훨씬 더 나은 위치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전제나 편견도 없이 객관적인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그 사람은 아마도 자신이 텍스트를 읽는 방식에 영향을 주고 영향을 미치도록 허용할 위험이 더 클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아마도 가장 좋은 접근 방식은 절충적인 접근 방식일 것입니다. 즉, 이러한 모든 다양한 방법은 내가 설명한 방식에서도 때로는 특정 접근 방식이 가치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역사적 비평적 접근 방식은 가치가 있지만 텍스트에만 적용하면 본질적인 약점도 있습니다. , 다른 해석 방법론과 텍스트의 다른 차원을 무시합니다.

따라서 절충적 접근 방식을 통해 우리는 앞서 말했듯이 텍스트의 다양한 차원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접근 방식을 통해 텍스트의 다양한 측면에 접근할 수 있으므로 절충적 접근 방식을 통해 다양한 방법이 서로 균형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문학적 접근은 텍스트를 있는 그대로 다루고, 텍스트의 구조와 텍스트가 어떻게 결합되는지, 텍스트의 내부 작업을 다룬다는 점에서 매우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들은 본문에 대한 역사적, 신학적 접근을 제외하고 독점적으로 적용될 때 본질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다양한 해석 방법이 서로 균형을 이루고 가능한 텍스트와 가장 그럴듯하고 완전한 상호 작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절충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가능한 한 절충적인 접근 방식은 다른 사람의 해석을 듣고 다른 사람이 텍스트에 대해 말한 내용을 듣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장소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텍스트를 읽은 사람들의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특히 소외된 사람들이나 특정 상황에서 온 사람들은 우리와는 매우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 본문 자체가 다루고 있는 상황에 더 가까울 수 있는 상황, 때로는 매우 다른 관점에서 본문을 해석한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음으로써 때로는 우리 자신의 해석에서 맹점을 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상황

이는 6위까지 도전하고 더 많은 독자 반응과 해체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해석이 우리 자신의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우리의 해석에 도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해석을 듣는 것입니다. 실제로 더 많은 해방 접근법, 해방 신학, 해방 주석의 파생물이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많은 시간을 이야기하지 않았던 것의 파생물 중 하나는 문화적 해석이라고 불리는 것인데, 이는 텍스트를 다시 해석하고 다양한 문화와 상황에서 읽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것은 적어도 우리 자신의 편협한 면을 드러내고 우리 자신의 관점이 우리가 텍스트를 읽는 방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드러내는 데 종종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가능한 한 많은 해석을 하기 위해 단순히 복수성을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라, 저자가 실제로 무엇인지에 더 가까워지도록 도와주는 성경 본문의 실제 관점에 더 가까운 관점을 갖는 것이 목표입니다. 의도.

따라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다른 사람들이 성경 본문을 어떻게 읽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원래의 역사적 맥락에서 본문 자체의 의도와 어떻게 더 일치할 수 있는지를 말하고, 인식하고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방법에 관해 살펴보아야 할 여덟 번째 관찰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순종적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요구되는 바로 그 방식으로 이에 응답해야 합니다. 흔히들 말하듯이, 성경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우리도 성경 아래에 서야 합니다. 따라서 일부 사람들이 말했듯이 단순히 정통을 따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지만 정통 실천을 옹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성경이 영감받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성경이 말하는 대로 행하지 않을 때 실제로는 불신을 드러낸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일관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적용은 해석의 궁극적인 목표이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 8가지 원칙은 이전의 모든 방법론과 이론, 우리가 성경 본문에 접근하는 방법과 관련된 해석학적 이론을 살펴봄으로써 얻은 보다 광범위한 일반적인 통찰 중 일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시로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동시에 하나님의 계시에 있는 인간의 말을 모든 역사적, 문화적 뿌리. 그렇다면 해석 과정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나의 목적은 상세한 방법론을 확립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성경 본문에 접근하는 데 유용할 수 있는 형식으로 이 정보를 종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두 가지, 첫 번째는 동전의 양면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것을 단순히 해야 할 일의 체크리스트, 즉 마치 일련의 단계로 보는 것을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레시피를 작성하는 것처럼 기계적으로 이동할 수 있으며 최종 결과는 저자가 의도한 대로 텍스트의 의미가 됩니다.

또는 한 단계를 수행한 후 완료하고 다음 단계로 이동한 후 완료하고 다음 단계로 이동하여 해당 단계를 완료하는 일련의 단계로 보려면 모든 단계를 거치면 최종 결과물이 텍스트에 대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한편으로는 이것을 기계적으로 수행되는 레시피나 최종 제품에 도달하는 것처럼 일련의 단계로 단순히 보는 기계적 접근 방식을 피하고 싶습니다. 그 대신, 제가 말하고 싶은 두 번째 것은 해석학, 성경 해석학에 대한 논의에서 많은 해석가들이 관심을 기울이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해석 과정이 아마도 가장 잘 구상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선형의 은유를 사용하여 나선형으로 더 많이 처리합니다.

즉, 해석 과정은 일종의 앞뒤로 텍스트와의 상호 작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에 이르고, 그 세계로 들어가고, 그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가정과 전제, 짐과 신학적 배경을 가지고 그렇게 하며 본문을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우리는 원래의 맥락에서 텍스트를 계속 탐구하면서 텍스트가 이러한 가정에 도전하고 그러한 관점을 변형하여 텍스트와 일치하도록 허용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경 본문과 저자가 역사적 맥락에서 의도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본문의 의미에 점점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상호 작용입니다. 또한 이는 해석 과정에서 이러한 다양한 해석 방법이나 단계가 우리가 완료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서로 상호 작용하고 우리가 다른 작업을 수행하는

방식에 계속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들은 해석 과정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나선형은 텍스트를 계속 탐색하고 텍스트가 말하고 우리의 가정에 도전할 수 있도록 앞뒤로 해석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우리가 생각해 낼 수 있는 더 나은 은유 중 하나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저자가 의도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과 그의 독자들이 역사적 맥락에서 이해했을 것과 일치하는 성경 본문의 그럴듯한 읽기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악순환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지만, 나선이라는 비유를 사용하면 그 나선은 텍스트 자체의 의미에 가까워질수록 점점 더 촘촘해진다. 그렇다면 해석적 접근 방식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선, 제가 하고 싶은 것은 다시 8번에 대해 논의하는 것인데, 이를 좀 더 자세히 전개할 수도 있고, 심지어 약간 다르게 배열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단순히 이러한 다양한 접근 방식을 하나로 묶는 표준적이고 거의 논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되는 방법을 따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것들을 약간 다르게 배열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상당히 일반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즉 일반적인 해석 방법론을 반영하는 것뿐 아니라 이러한 방법을 성경 본문에 적용하는 데에도 상당히 논리적인 접근 방법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연구한 다양한 방법과 접근 방식을 통해 이를 식별하고 다시 연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성경 본문을 읽을 때 본문을 읽는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제와 믿음을 확인하고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 어떤 신학적 헌신을 하고 있는지 자문해 보십시오. 본문을 이해하는 데 어떤 구체적인 배경이나 문화적 배경이 도움이 됩니까? 당신은 이 본문에 대해 어떤 이해를 갖고 이미 그것을 얻었습니까? 이 텍스트를 읽는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 텍스트에 대한 어떤 사전 이해가 있습니까? 본문에서 당신에게 익숙하지 않은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 텍스트를 읽는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것이 있습니까? 따라서 이것은 우리 자신의 가정, 배경, 신념을 인식하고 그것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것의 일부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가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읽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며, 우리는 텍스트가 그러한 도전에 도전하도록 허용하고 그것이 우리가 텍스트를 읽는 방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인식해야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다음 단계를 살펴보세요. 이것은 또 다른 단계일 수 있지만 나머지 접근 방식과 이러한 방법 뒤에 있는 가정은 전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좋은 영어 번역을 참고할 것이라는 가정입니다. 전체 과정에 걸쳐 해석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나는 그리스어와 히브리어에 대한 지식이 없다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리스어와 히브리어를 아는 사람은 분명히 해당 텍스트로 작업하고 싶어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주로 이 해석 방법은 주로

그리스어와 히브리어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스어와 히브리어. 따라서 해석 과정의 두 번째 단계는 텍스트의 사회적, 역사적 세계를 연구하는 것입니다. 즉, 텍스트의 세계로 들어가 텍스트를 생산하거나 거짓말하는 맥락을 역사적, 사회적, 종교적, 정치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성경 본문 뒤에. 그리고 제 생각에 해석 과정의 이 부분을 구성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텍스트 뒤에 숨겨진 역사를 연구해야 합니다. 즉, 저자와 같은 것, 저자에 대해 알 수 있는 모든 것, 알 수 있는 모든 것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독자들, 날짜와 같은 것들에 대해 알 수 있는 것, 그것이 중요한 시기, 책의 명백한 목적, 해결되고 있는 문제 또는 해결되고 있는 문제.

이 정보 중 일부는 본문 자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성경 본문, 구약 또는 신약 본문을 읽음으로써 때때로 상황을 추론하거나 저자나 독자 또는 글의 목적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본문 뒤에 있는 역사를 그럴듯하게 재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른 추가 성경 자료도 고려해야 합니다. 본문이 다루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역사적, 문화적 요인은 무엇인지, 더 넓은 역사적, 문화적 맥락은 무엇이었습니까? 성경 본문의. 두 번째로, 우리는 이것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역사, 즉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 종교적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나 본문 자체의 언급을 인식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당신이 텍스트를 읽는 방식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해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셋째, 해석 과정의 세 번째 단계는 다루고 있는

텍스트의 문학 장르나 형식을 식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과 신약에서 여러 유형에 대해 이야기한 문학은 어떤 유형의 문학인가, 이것은 서술인가, 이것은 시인가, 이것은 지혜 문학인가, 이것은 예언인가, 율법과 법률 문학인가, 서간인가, 묵시적인인가.

당신이 공부하고 있는 문학 장르나 텍스트의 형식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둘째, 그 문학적 형식에서 어떤 원리가 나오는지, 어떤 해석 원리가 나오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모든 문학 형식은 그것을 다르게 취급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학적 형식을 바탕으로 특별히 어떤 방법이 필요한지 물어볼 필요가 있다. 어떤 질문을 해야 하는지, 어떤 독특한 질문을 해야 하는지, 문학적 형식을 고려할 때 어떤 원칙을 적용해야 하는지. 넷째는 본문의 더 넓은 문학적 맥락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구절이 전체 책의 전체 구조와 주장에 어떻게 부합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예를 제시하는 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시점에서 어떤 사람들은 책의 개요를 설명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개요가 해석적이며 텍스트의 구조와 진행 상황을 드러내는 데 도움이 되는 한 개요를 선호합니다.

책의 더 넓은 계획과 구조 내에서 텍스트가 어디에 적합한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책에서 저자의 주요 주장에 어떻게 부합합니까? 그리고 제가

이전에 말했듯이, 성경 본문을 다룰 때 장과 절의 구분을 무시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여러 번 말했듯이, 그것들은 단순히 우리가 같은 위치에 도달하도록 돕기 위해 존재합니다. 특히 긴 책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반드시 성경 자체의 분열을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구조를 이해하는 데 있어 장과 절의 구분을 대체로 무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당신의 구절이 책의 전체 구조와 계획에 어떻게 부합하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러나 둘째, 그것이 앞에 오는 것과 뒤에 오는 것과 더 구체적으로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텍스트가 바로 앞에 나오는 섹션에서 어떻게 나타나나요? 그 이후에는 어떻게 준비하고 적합합니까? 귀하의 텍스트가 없다면 무엇이 누락될 것입니까? 그것이 발생하는 더 큰 부분의 주장에 어떻게 들어맞습니까? 내 생각에는 당신이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을 때까지는 주석과 해석의 다른 단계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텍스트의 모든 의미는 그것이 나타나는 작품의 더 넓은 문학적 맥락과 일관되고 일관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해석의 다음 단계는 텍스트의 세부 사항을 분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해석이 텍스트에 대한 통과 이해를 제공하면서 폭넓게 시작된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범위를 좁혀 텍스트의 세부 사항을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말했듯이, 우리가 이러한 단계를 진행하면서 문학적 맥락을 완성하고 포기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는 세부 사항을 해석하기 위한 틀을 제공합니다.

때로는 세부 사항으로 인해 돌아가서 상황과 심지어 역사적 맥락에 대한 이해를 수정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해석가들이 인식한 본문의 세부 사항과 전체 사이를 오가는 해석학적 나선형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이 다섯 번째 단계에서는 이제 텍스트 자체의 세부 사항을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문학 장르에 적합한 방법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연구를 위한 핵심 용어나 키워드를 식별하십시오. 우리는 어휘 분석에 대해 이야기하고 어휘와 텍스트의 단어를 검토하고 그것이 의미에 어떻게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야 할 몇 가지 함정. 주요 문법 문제와 그 기능을 식별합니다. 여기에서 당신이 그리스어와 히브리어를 모른다면, 당신은 아마도 매우 문자 그대로의 목조 번역, 형식적으로 동등한 번역에 의존하고 싶을 것입니다. 또한 주석과 텍스트의 문법적 특징을 노출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다른 도구에도 의존하고 싶을 것입니다.

중요한 연결자, ands 및 buts 및 그러므로 , 그리고 서로 다른 문장이나 단락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 보여주는 기능을 하는 것들을 분석합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다루어야 할 다른 문제와 해석상의 문제를 식별합니다. 본문을 이해하기 전에 해결해야 할 문제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말했듯이 문학 장르가 세부 사항을 검토하는 방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내러티브를 다루는 경우 문단의 관계에 더 중점을 둘 것입니다. 연설과 내러티브 외에는 세부적인 논리적 흐름과 문장에서 문장으로, 절에서 절로의 긴밀한 논증에는 별로 관심이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할 수 있지만 아마도 단락 수준과 훨씬 더 큰 텍스트 단위에 더 중점을 둘 것입니다.

시에서는 평행법이나 은유적 화법 같은 것에 더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편지, 당신은 그 편지를 쓰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질문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문자를 사용하면 문장에서 문장으로, 절에서 절로 논증을 더 주의 깊게 추적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인 유형의 문학에서는 상징, 본문의 상징, 그리고 그 상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더 초점을 맞추게 될 것입니다.

복음서를 사용하면 양식 및 편집 비평과 같은 도구를 활용하게 됩니다. 줄거리, 등장인물, 문학적, 서술형 접근 방식에 적용할 수 있는 것들과 같은 다른 서술 분석 도구입니다.

구약성서에서는 신약성서에서 구약성서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질문하게 됩니다. 직접 인용이든 암시를 통해서든 구약성경 본문이 무엇인지, 해당 본문에 대한 이해가 어떻게 기여하는지, 저자가 이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물어보세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본문의 세부 사항을 분석하는 단계에서 본문에서 놓쳤을 수 있는 다른 세부 사항이나 문제를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주석이나 기타 도움말을 참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내용을 검토할 때 항상 질문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이 본문을 읽는 데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가? 세부 사항을 단순히 찾아내어 페이지 위에 그대로 두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어휘와 문법, 연결어와 장르의 다양한 특징을 살펴보고 신약에서 구약의 사용에 대한 질문을 할 때 매 단계에서 계속해서 질문을 제기해야 합니다. 질문, 이것이 텍스트 해석에 어떤 차이를 가져오는가? 이것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어떤 도움이 됩니까? 단순히 텍스트의 특정 부분을 살펴보고 레이블을 지정하거나 단어와 그 의미를 분리하는 것은 나에게 아무 것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것을 본문 자체의 의미와 연결시키려고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어떤 도움이 됩니까? 그렇다면 여섯 번째는 본문의 신학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어떤 핵심 주제, 어떤 핵심 신학 용어 또는 주제가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까? 본문에서는 어떻게 전개됩니까? 당신의 구절이 그 주제와 그 이해에 어떻게 기여합니까? 그러나 또한 질문하고 싶은

것은 당신의 본문이 성경의 더 폭넓고 포괄적인 신학 이야기에 어떻게 들어맞는가 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본문의 궁극적인 맥락은 현재 서로 유기적인 관계에 있는 구약과 신약으로 구성된 더 넓은 성경 신학 정경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인식하십시오. 따라서 이 단계는 단순히 본문의 신학을 분석하는 것이며,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맥락이 본문의 신학적이고 더 넓은 정경적 맥락임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당신은 당신의 텍스트가 그 이야기에 어떻게 들어맞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어디에 적합합니까? 그것이 진행 중인 이야기와 어떤 관련이 있고 기여합니까? 특히 명확한 암시나 인용이 있는 경우에는 구약의 관점에서 신약을 읽으십시오. 그러나 궁극적으로 신약성서에 비추어 구약성서를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 활동의 절정에서 신약성서가 어떻게 최종적으로 성취되는지 살펴봅니다.

제칠. 일곱 번째 단계는 주요 아이디어를 하나 또는 두 개의 완전한 문장으로 요약하는 것입니다. 이제 더 넓은 맥락, 역사적 배경, 본문의 세부 사항 검토, 본문의 신학적 차원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수행한 모든 것을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본문의 본문, 주요 취지 또는 주요 아이디어를 요약할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추상적인 생각이 아닌 한두 개의 완전한 문장에서, 한두 개의 완전한 문장에서, 본문의 의미로 무엇을 인식하시나요? 이러한 문장은 단순히 내용이 아닌 텍스트의 의미와 기능에

초점을 맞춰야 하며, 텍스트가 무엇을 의미하고 어떻게 기능하는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 밝혀야 합니다. 또한 모든 세부 사항을 설명해야 합니다.

텍스트의 모든 세부 사항은 주요 요약 아래에 포함되고 요약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내용이 아닌 본문에 특정한 내용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에게 순종해야 하거나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그에게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일반적인 진술을 제시하는 것은 사실상 구약과 신약의 모든 본문에 들어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그 구절의 목적과 일치하기 때문에 그 문맥에서 기능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본문에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해석적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내용을 반복하고 요약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본문의 의미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을 때까지는 텍스트의 의미를 한두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을 때까지 텍스트 자체와 충분히 씨름하지 않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는 유효한 지원서를 검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유효한 적용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해야 한다고 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8번은 마지막에 추가할 단계가 아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말했듯이 해석의 바로 그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본문의 세계와 우리 자신의 세계 사이에 가능한 상관자와 대응점을 그려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본문에 대한 자신의 이해와 해석에 비추어 타당한 적용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대 본문과 성경 본문의 세계, 그리고 우리의 현대 세계 사이에는 어떤 유사점이 나타나는가? 문화를 넘어 적용될 수 있는 본문에서 어떤 원칙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비유, 이러한 원칙, 이러한 적용이 성경 본문의 더 넓은 맥락과 일치합니까? 본문의 목적, 본문의 목적 및 의도와 일치합니까? 그리고 개인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에게 구체적으로 적용하라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내가 말했듯이 이 목록의 해석 원리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이것이 단순히 기계적으로 수행하는 일련의 8단계가 아니라 단순히 각 단계를 수행한 다음 따로 두는 것임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하지만 그보다는 역동적인 과정에 가깝습니다. 예, 이러한 단계는 뚜렷해야 하며 하나는 이를 통해 진행되지만 동시에 다른 단계가 때때로 한 단계를 수행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그리고 한 단계를 수행한 후에는 다시 돌아가서 다른 단계를 검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원래의 역사적, 문학적 맥락에서 작가가 의도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텍스트의 의미에 점점 더 가까워지려고 노력하면서 나선형처럼 텍스트와의 지속적인 상호 작용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텍스트를 해석할 때 창의성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해석한다는 점을 덧붙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를 단지 조리법을 따라가며 8단계를 거치는 것처럼 취급하는 것의 다른 측면은 해석에는 어느 정도 해석자의 창의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것은 당신의 능력과 창의성에 달려 있습니다. 즉, 거칠거나 다른 의미를 생각해내는 것보다는 이러한 방법을 성경 본문에 창의적이고 통찰력 있게 적용하는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목표는 그럴듯한 해석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저자가 의도한 것과 가장 일치하는 것입니다.

성경 본문의 역사적, 문화적 맥락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성경 본문의 문학적 맥락과 일치하는 것. 본문의 신학을 반영하는 것.

그리고 교회가 세상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통역사가 세상과 교회에서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방금 설명한 것과 같은 해석 과정이 적어도 우리에게 출발점, 즉 하나님께서 성경 본문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성경 본문을 이해하도록 돕는 시작 방법론을 제공한다고 확신합니다. 그분의 계시를 그분의 백성에게 전달하기 위해 그분의 인간 저자들을 통해 의도하셨습니다.

1세기나 그 이전이든, 아니면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이든 마찬가지입니다.